

구조건·대원 투입 살살이 탐색...추가 붕괴 우려에 난항

실종자 6명 수색 작업 어려움

수색전 일부 특정장소서 맴도는 등 특이반응 지역 집중 조사 타워크레인 17일 철거...외부 수색 위해 낙하 방지물 설치도

소방당국이 12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6명을 구조하기 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의 우려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6명에 대한 생사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이 잔재물 아래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잔재를 제거를 위해 붕괴된 아파트 외벽에 고정된 타워크레인의 일부분을 철거를 결정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진단 인원 9명이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오전 11시20분께 사고 현장 실내 수색작업에 수색견 6마리와 소방대원을 투입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 실내 수색작업에 투입된 수색견들은 지상 26층에서 28층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맴도는 등 특이 반응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또 구조대원 25명을 투입, 붕괴된 건물 지하 4층에서 1층까지 정밀 수색을 마친 뒤 지상 2층부터 38층까지 육안 수색을 마쳤다.

문화준 광주서부소방서장은 "1차 수색에서 수색견들이 보인 반응은 강한 반응은 아닌 약한 반응이었다. 이어 2차 수색에서 수색견 6마리를 재 투입해서 반응을 살폈다"며 "붕괴된 웅벽과 가까운 부분은 대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 수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13일 오전 지하 1~4층, 지상 2층부터 38층까지 재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실종자 수색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 HDC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를 거쳐 붕괴된 아

파트 외벽에 기울어져 있는 타워크레인을 철거기로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이 대기하는 천막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색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군산에서 작업 중이던 HDC현대산업개발 소유의 1200 t 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건물 외벽에 불안하게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크레인 철거 관련 브리핑에 나선 민성우 HDC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작업 계획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며 "타워크레인 설치 구간, 아파트 웅벽, 지상 슬라브 상부층에 콘크리트가 잠재하는 구간으로 나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상무는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과 관련, "군산에 있는 1200 t 크레인을 해체하고 있는데, 트레일러 20대를 동원해 운반, 현장에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은 15-16일 이틀간의 조립을 거쳐 17일 설치된 뒤 현재 붕괴 건물 외벽에 고정된 채 기울어져있는 크레인을 철거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된 건물 웅벽의 경우 더이상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 계측기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슬라브 상부층의 경우 콘크리트 잔재들이 더 이상의 떨어지지 않도록 경사로를 설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2일째인 12일 오후 수색견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탐색에 투입되고 있다. 수색 대원들이 사고현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 소방대원들의 수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6명은 50대가 4명,

60대가 2명이다. 광주 거주자가 4명, 타 지역인이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당일 실리곤 작업(3명)과 소방설비 업무(2명), 배관 업무

(1명)를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살아만 있어 다행” 현장에서 밤 새며 무사귀환 기원

가족들 피말린 기다림

“이렇게 추운데 빨리 구조부터 해야지, 하루 종일 기다리지만 하하하, 생존해 있어도 열이 죽겠어. 제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등이 붕괴된 사고로,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 6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

작업자 가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현장 부근을 떠나지 않고 남편,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전 등의 문제로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인명 수색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사고 대책본부의 미흡한 탓에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실리곤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 50대 후반 실종자의 조카는 “희망만 품고 있다. 지난 밤 구조한

“밤 되면 수색 어렵하나” 발동동

영하 강추위 속에 간절한 기도

“하루 지나도 별 조치 없어” 분노도

다더니, 결국 수색이 중단돼 허탈했다”며 “하루가 지났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분노했다.

일부 가족들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12일 걱정스러운 듯 사고 현장 부근에 설치된 천막과 사고현장 일대를 오갔다.

한 작업자의 부인은 “안전하다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곧 또다시 밤이 올텐데 그럼 수색을 하지 않을 테고 어쩌려라는 거냐”고 말했다.

가족들은 현장을 방문한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가족들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강요하고 떠쓰는게 아니다. 정확한 설명만 해달라”고 울먹였다.

한 가족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지 않냐”며 “밤에 영하 6도-7도로 추웠는데...”라며 울분을 찬 듯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사고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작업자 6명은 50대에서 70대 초반의 남성들로 광주지역 거주자 4명이며, 2명은 타 지역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붕괴된 201동 내부에서 실리곤 작업(3명), 소방설비 업무(2명), 배관 업무(1명)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12일 오전 11시께 수색견 6마리와 인력 등을 투입, 붕괴된 건물 지하부터 지상 18층까지 수색을 마쳤으나 오후 6시 현재 실종자들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구조를 붕괴 2일째를 맞은 12일, 실종자의 가족이 구조본부 앞에서 소식을 기다리다 지친 듯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현장소장 입건·감리인 조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본격적 수사와 사고 조사가 시작됐다.

광주경찰청은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지시상 혐의를 적용해 아이파크 건설현장 소장 A(49)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된 6명 노동자의 위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등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 현장 감리단장을 비롯해 8명의 감리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일단, 아이파크 현장사무소와 공사현장에 투입됐던 하도급 업체 7곳을 대상으로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고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도 나섰다. 대검은 광주지검과 광주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김지후-김민석 기자 dok2000@

<h2>꼭! 받아야 할 돈 회수</h2> <p>※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p> <p>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p> <p>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p> <p>(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p>전문추심인 직접관리</p> <p>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p> <p>24시간 상담가능</p> <p>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p>	<h2>전원주택 개발부지</h2> <p>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한 부지, 임야, 매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선평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외벽 스타라브룸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면 조성 20여년생 8종 1천5백여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성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이상선 바라본 경관수려 매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림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실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음당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5천원 <p>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호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p> <p>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p>	<h2>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h2> <p>(주)프라임월드의 2022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p> <p>-아 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집일시: 2022.02.03. 목 오전 10:00 2. 소집장소: (주)프라임월드 사무실 3. 주의인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부채의 건 <p>2022년 1월 13일 (주)프라임월드 대표이사 류연성</p> <h2>풍력발전사업 용량변경공고</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명칭: 자은주민바람발전소(주) 2. 발전소 주소: 산안군자은면 가동리 일원 3. 발전사업설비 용량: 기존 40MW → 80MW 4. 사업개시예정일: 2022.06월 1차 준공 후 상업운영 예정 2022. 12월 2차 사업 착공 예정 5. 사업 운영기간: 준공 후 20년 6.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임무성 대표 7. 의견제출 기간: 2022. 01. 12 ~ 01. 26 12:00 까지 8. 연락처: 062-673-7729 <p>2022년 1월 13일</p> <p>kwangju.co.kr</p> <h2>光州日報</h2> <p>광고신청 및 재배포문의 062.227-9600</p>	<h2>상속한정승인공고</h2> <p>• 피상속인: 방 조장현 (570419-XXXXXX) • 최후주소: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호로 116-16 피상속인 방 조장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4032호로 신청하여 2022년 1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과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2년 1월 13일</p> <p>• 상속인: 조영득 (871215-XXXXXX) 광주 서구 영화로 57번길 19. 201동 1003호(화정동, 금호타운) • 신고기간: 2022. 1. 13. ~ 2022. 3. 25. • 채권신고처: 상속인 조영득의 주소</p> <p>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p> <p>光州日報</p> <p>• 지역내</p> <p>북구 • 동광 266-1920 • 문동 266-1900 • 북광 525-3761 • 신안 222-8171 • 영산 571-7858 • 오차 266-7801 • 영동 433-1503 • 유산 433-1503</p> <p>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8001 • 중앙 222-9054 • 중경 222-8171</p> <p>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북신 673-6836 • 백호 675-6605 • 진월 671-7276</p> <p>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신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p> <p>광산구 • 온산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신 944-0444</p>
---	---	--	---